





참 좋은 당신

위	코
한	로
	나
詩	19
選	
	극
	복
	을

Rotary



프롤로그

일전에 모 일간지에서 한 간호사를 인터뷰한 기사를 읽었다. 코로나 19 진단 현장에서, 또는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실재 없이 봉사한 어느 간호사의 숨가뻐던 순간들을 잘 묘사해 준 기사였다. 인터뷰 마지막 부분에 그 간호사의 한마디 소감이 우리의 심금을 울렸다. “저는 제가 돌봤던 환자들을 떠올렸어요. 어떤 이들은 갇힌 상태에서 분노했고, 간호사를 상대로 화를 냈지요. 종일 대화할 사람도 없고 얼마나 답답했겠나, 그들은 정말 외로웠겠구나, 누군가 아프면 다정한 말과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때 좀 더 다독거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도 바빴기 때문에..., 그게 후회가 됐습니다.” (조선일보 7월 13일자)

진단, 치료 등은 의료인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열심히 했으나 아쉽고 후회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다. 환우들에게 반드시 코로나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정신적, 심리적 위안과 확신의 마음을 충분히 실어주지 못하고 지나쳐 버린 것이 못내 아쉽다는 뜻일 것이다. 질병과 투쟁을 벌이고 있는 환우들에게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의학적 보살핌이 물론 필수적이지만 그들에게 완치 될 수 있다는 확신과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리고 투병 중에 때때로 엄습하는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로타리는 이 점에 착안하였다. 로타리 회원 중에 다행히 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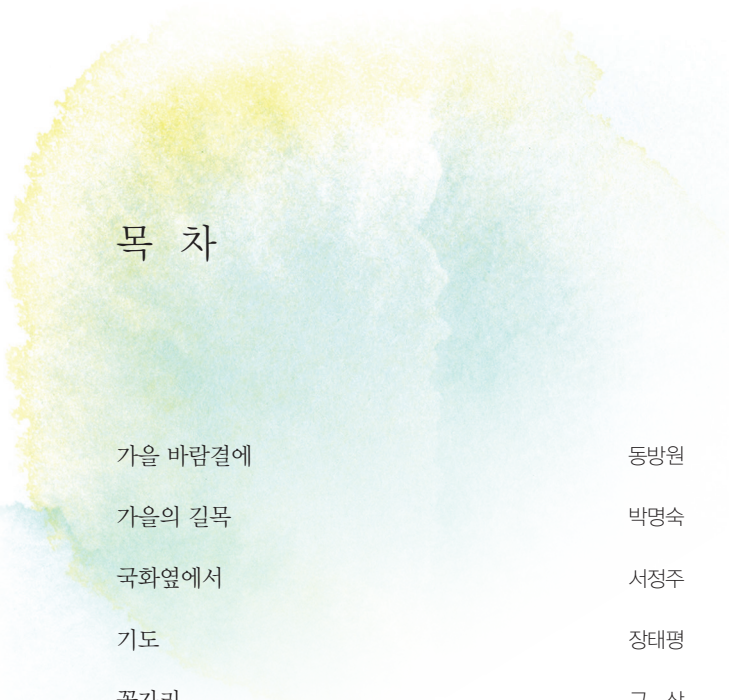


좋아하고 또 스스로 시를 쓰는 분들이 꽤 많다. 로타리는 사회봉사를 열심히 하는 단체이므로 회원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코로나 19가 우리를 괴롭히는 이 시기에 감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위로의 마음, 용기를 내시라는 응원의 말을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고맙게도 시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이 출선해서 예쁜 시들을 보내 오셨다. 병상에서 투병하고 계신 분들, 감염으로 격리 되어 있는 분들에게 반드시 아픔을 이기고 승리하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다.

투병하고 계신 분들이 스스로 읽고 또는 간병하시는 분들이 옆에서 틈틈이 낭송해 주시면 질병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용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희망하는 마음에서다.

“가족들이,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친구들이, 나아가서는 온 국민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쾌유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힘내세요. 벌써 만이천명이 넘는 감염자들이 완치 됐잖아요? 코로나는 반드시 꺾을 수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자신을 가지세요.” 드디어 시인들도 코로나 극복 노력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즉 로타리의 마음입니다. 사랑합니다.

국제로타리 3650지구 회원 일동 드림



목 차

가을 바람결에	동방원	8
가을의 길목	박명숙	10
국화옆에서	서정주	12
기도	장태평	14
꽃자리	구 상	16
꿈 속에서	이정신	18
내 나이 가을에서야	이해인	20
나그네	박목월	24
다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종	26
뜻밖의 선물	민병문	28
마음	김광섭	30
멋있게 살아가는 법	용혜원	32
비 가는 소리	유안진	34
벚꽃	배은순	36

봄은 오는데	박준영	38
새 아침에	조지훈	40
선인장	유장희	42
소소한 행복	김명애	44
시련의 언덕을 넘으며	김무일	46
오늘같은 내일이면 좋겠습니다	김찬행	48
우산도 없이	주광일	50
자작나무	배은순	52
참 좋은 당신	김용택	54
코로나19, 설렁탕 한 그릇에 목숨을 걸다	안상제	56
하늘이 화났어	홍성훈	58
햇살	하회상	60
희망의 이름으로	정이현	62
로타리 소개		66

가을 바람결에

동방 원 (시인)
서울마포로타리클럽

귀뚜라미 가녀린 울음들 사이로
매미들의 합창이 잦아드는 시간
계절이 교차하는 여름의 끝자락에서
당신의 안부를 묻습니다.

숨막히는 삶의 무게
서서히 서로를 떨어내며
어루만지던 가슴 사이로
새록새록 사랑은 자라나고

그대 향한 비밀한 연서
지금쯤 당신의 마음에 전해졌을까

유난히 커다란 중추^{中秋}의 달 속에
정인^{情人}의 마음 담아
가을 바람결에 실어 보냅니다.



가을의 길목

박명숙

새서울로타리클럽 회장

가을로 가는 길목에서
여름을 지나야 하네
소나기를 맞기도 하고
햇빛에 눈을 감기도 하지
봄이 되면 가을이란 굽이치며 오는 줄 미리 알았다면 허나
세상은 신神도 모르는 것
가보지 않은 길에서 누군가는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하지
너무 긴 여름을 지나더라도
반드시 구름은 흘러가고야 말아
지금 우산을 쓰자면
이 비는 맑은 날을 재촉하리라.



국화옆에서

故 서정주 (시인)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 먼 젊음의 뒤편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기도

장태평 (시인)
서울회현로타리클럽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침단과학으로 전지한 듯
풍요로운 경제로 전능한 듯해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병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루빨리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혼란과 두려움을 멀해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소서
바이러스를 이겨낼 의술을 갖게 하시고
질병에 대응할 시스템을 세우게 하소서
보이는 것 뒤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게 하시고
지금까지의 모든 틀과 한계를 벗어나는 새로운 능력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소서
인간의 탐욕을 포장한 덧없는 생각과 행동을 멈추게 하시고
발전 속에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우리들에게
자족과 이웃사랑의 능력을 주소서
그리하여 다시 뛰어 오를 참능력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소서
사회적 접촉이 억제되는 곳에서 서로 마음의 눈을 보게 하시고
내면의 중요성을 알게 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땀 흘려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고난과 절망을 딛고 달려 왔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를 통해 우리를 정금같이 빛나게 하소서
모든 오늘은 더 좋은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게 하소서
태양이 꺼지지 않고 햇빛이 온 세상을 밝히는 의미를 알게 하소서

꽃자리

故 구상 (시인)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고
너는 네가 만든 쇠사슬에 매여 있고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묶여 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사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꿈 속에서

이정신

서울예지로타리클럽

꿈속에선 난 언제나 현역이다

어떤 미련이 남아 있기에

어떤 꿈이 남아 있기에 그런것일까

그러나 기분은 나쁘지 않다

그 어느때보다도 열정적으로 일하다가

그 어느때보다 고심하며 일하다가 화들짝 깨어난다

지나고보면 모든것이 아쉬움으로

그리움으로 번져가는가보다

오늘밤도 꿈속에서

내가 좋아하던 일들을 만나러 가야겠다

그래서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 싶다

난 아직 현역이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현역이고 싶다



내 나이 가을에서야

이해인 (시인)

젊었을 적
내 향기가 너무 짙어서
남의 향기를 맡을 줄 몰랐습니다

내 밥그릇이 가득차서
남의 밥그릇이 빈 줄을 몰랐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에 갇힌 마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세월이 지나 퇴색의 계절
반짝 반짝 윤이나고 풍성했던
나의 가진 것들이 바래고
향기도 열어 지면서
은은히 풍겨오는
다른 이의 향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고픈 이들의
빈 소리도
들려옵니다

목마른 이의 갈라지고 터진 마음도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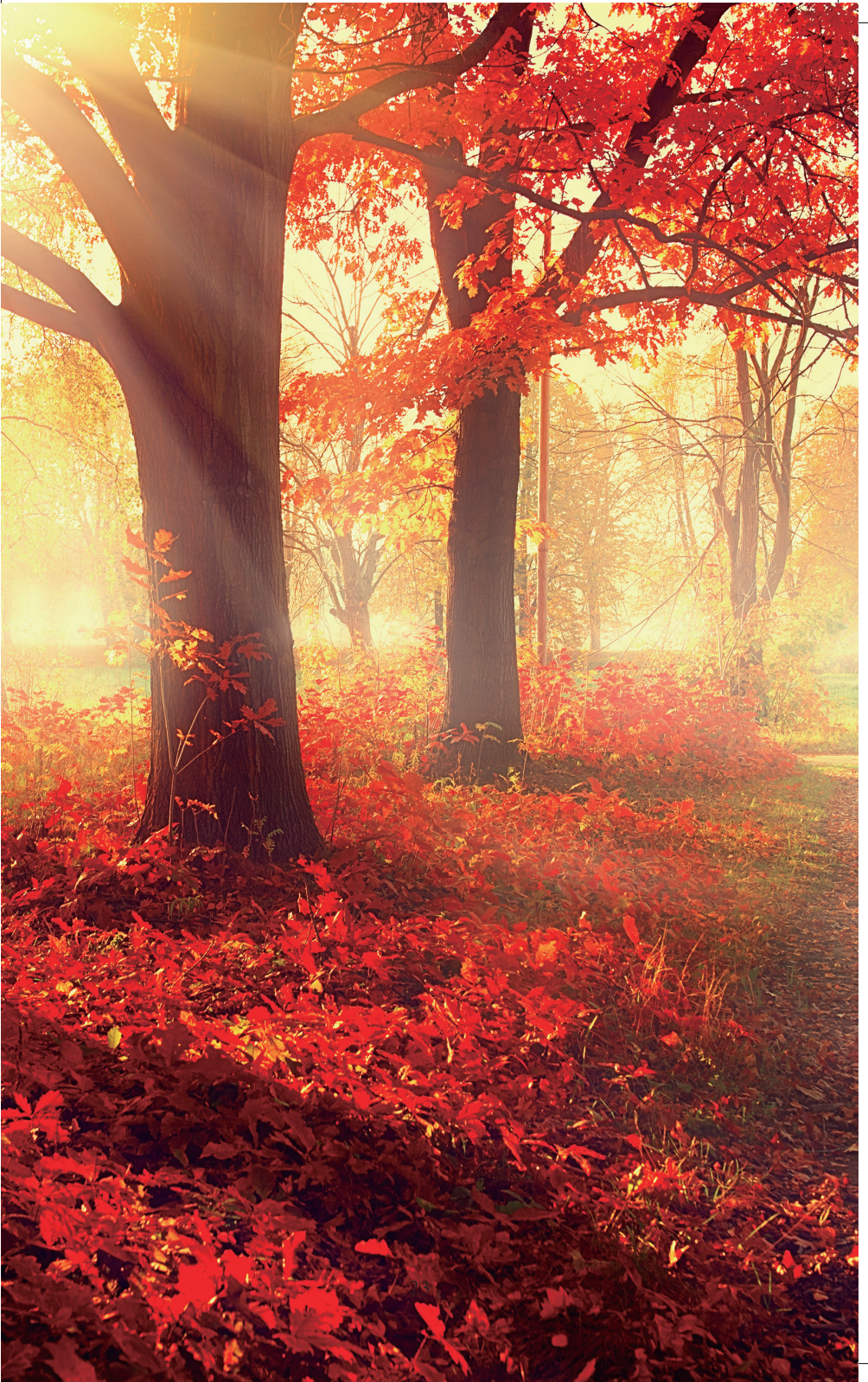
이제서야 보이는
이제서야 들리는
내 삶의 낮은 깨달음!

이제는
은은한 국화꽃 향기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밥그릇 보다
빈 밥그릇을 먼저 채우겠습니다

받은 사랑 잘 키워서
풍성히 나눠 드리겠습니다

내 나이 가을에
검손의 언어로 채우겠습니다



나그네

故 박목월 (시인)

강나루 건너서
밀밭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다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종 (시인)

시간과 공간에서 구름이나 새같이 자유스러웠던 우리의 일상
지난세월 흔적을 상하좌우 촌촌히 되새겨 보면서
뼈깍는 애린의 성찰기회를 가져봅니다.

언젠가 이렇듯 솔직하고 담대하게
속사정을 토해 내본적이 있었던가

따뜻한 물에
발이라도 씻겨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미처생각도 못한 손씻고 입마개장치 숨쉬듯 하고,
만나고 이야기나누는것이 비정상이라니 당황스럽고
낯설기만 합니다.

피해의식에서 상대경계하며 대한다는 것은
새로운 표정관리 학습이 요구됩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귀하고 소중합니다 서로를
가슴으로 보듬아주고 위로하고 희망으로 지켜 주시자구요



내가 만약 확진자라면하는 가상설계를 하면서
외롭고 난감한 실정을 가상체험 해봅니다.
누가 말했듯이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세요
우리는 위기 앞에서 공동운명체라지요.

넋을 잃고 고통스러워하고 계신 분들을
초월적 경지로 헌신 봉사 정신자세로 지켜 보고 계신 천사들에게
뜨거운 격려와 성원을 전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한
치료와 간호자세 진정으로 경애하고 흠모합니다

그치지 않는 비는 없고 이것 또한 스쳐가리라를
굳게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뜻밖의 선물

민병문 (시인)

텅빈 도심 거리에 서서
허망한 그대를 생각한다.
왜 어디서 누가 보내 왔는가.

그러나 세월이여
흘러가는 모든 것 들이여
페스트 콜레라 독감 민주독재등
무서운 벌레들도 그예
자유인들에게 무릎 꿇었다는 것을

그래서 또다시 꽃이 피고 새가 노래했다는 것을
넉넉히 알려주지 않았던가

집콕 방콕 거리두기에
굴뚝 연기 차랑 왕래 뜸해지자
맑아진 하늘은 뜻밖의 선물

너를 향한 공포의 백신 경쟁이 무색하다



머지않아 감기 동생쯤 전락할 너에게
희생자 봉사자들의 땀흘린 사연을 적어보낸다



마음

故 김광섭 (시인)

나의 마음은 고요한 물결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구름이 지나가도 그림자 지는 곳.

돌을 던지는 사람
고기를 낚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

이리하여 이 물가 외로운 밤이면
별은 고요히 물 위에 뜨고
숲은 말없이 물결을 재우나니

행여 백조가 오는 날
이 물가 어지러울까
나는 밤마다 꿈을 덮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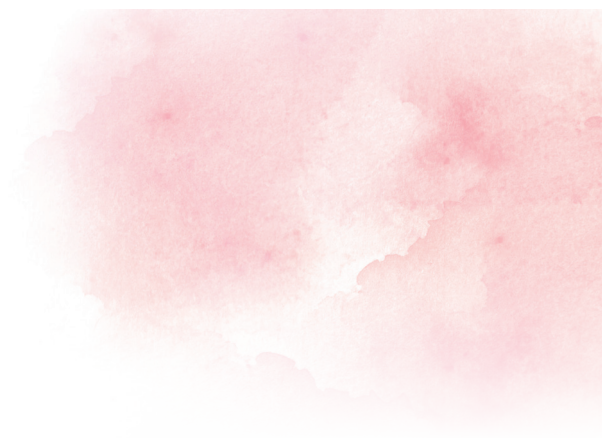
멋있게 살아가는 법

용혜원 (시인)

나는야
세상을 살아가며
멋지게 사는 법을 알았다네

꿈을 이루어가며
기뻐하고 유머를 나누고
만나는 사람들과
스쳐가는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 된다네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진실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며
욕심을 버리고
조금은 손해 본 듯
살아가면 된다네

A soft, pink watercolor-style cloud or smoke-like shape in the upper right corner of the page.

나는야
세상을 신나게
살아갈수 있음을 알았다네



비 가는 소리

故 유안진 (시인)

비 가는 소리에 잠 깼다
온 줄도 몰랐는데 썰물소리처럼
다가오다 멀어지는 불협화_{不協和}의 음정_{音程}

밤비에 못다 씻긴 희뿌연 어둠으로,
아쉬움과 섭섭함이 뒤축 끌며 따라가는 소리,
괜히 뒤돌아다보는 실루엣 같은 뒷모습의,
가고 있는 밤비소리,
이 밤이 새기 전에 돌아가야 하는 모양이다

가는 소리 들리니 왔던 게 틀림없지
밤비뿐이라
젊음도 사랑도 기회도
오는 줄 몰랐다가 갈 때 겨우 알아차리는
어느새 가는 소리가 더 들린다

왔던 것은 가고야 말지
시절도 밤비도 사람도..... 죄다



벚꽃

배은순 (화가)

하얀 양산 분홍빛 양산
임 마중 가려는
꽃 마음들이 설렌다

봄비가 간질이면
까르르 수집게 내려앉고
바람이 놀러 오면
하르르 하르르 함께 춤을 춘다

무거운 세상일에 지쳐
벚꽃 그늘 아래 서면
위로하듯
가만히 가슴에 안겨오는
새털같은 생애의 벚꽃 잎들

꽃 마음 갖고
나는
새날을 맞는다





봄은 오는데

박준영 (시인, 방송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데
빼앗긴 일상은
언제 돌아올지
기미는커녕
코로나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확산,
위기감이
내 몸을 감쌉니다.
가벼운 만남으로
차 한 잔 나누는
즐거움이 소소한
행복이었음을,
주고받던 수다가
세상사는
재미였음을,
마주 손잡고 나누던

미소가
사람 사는 정이었음을
이런 소소한 일상이
그리운 지금
나라를 걱정하고
도움을 기다리는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뵈온지 오래,
꽃 보다 그리운 당신,
많이 보고 싶습니다.



새 아침에

故 조지훈 (시인)

모든 것이 뒤바뀌어 질서를 잃을지라도
성진(星辰)의 운행만은 변하지 않는 법도를 지나나니
또 삼백예순날이 다 가고 사람 사는 땅 위에
새해 새아침이 열려오누나.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영겁(永劫)의 둘레를
뉘라서 짐짓 한 토막 잘라
새해 첫날이라 이름지었던가.

뜻 두고 이루지 못하는 한(恨)은
태초 이래로 있었나보다
다시 한번 의욕을 불태워
스스로를 채찍질하라고
그 불퇴전의 결의를 위하여
새 아침은 오는가.

낡은 것과 새것을 의와 불의를
삶과 죽음을
그것만을 생각하다가 또 삼백예순날은 가리라

굽이치는 산맥 위에 보랏빛 하늘이 열리듯이
출렁이는 파도 위에
이글이글 태양이 솟듯이
그렇게 열리라 또 그렇게 솟으라
꿈이여!



선인장

유장희 (국제로타리 3650지구 총재)

서울회현로타리클럽

넌 키가 커서 좋겠다
사막에 우뚝 선 선인장
신선의 손길이 그리도 강하던가

피약별과 거친 바람
공격해 오는 모든 해충에도
선인장은 의연하다.

예전엔 쌍떡잎 나무에
갈래 꽃이 피었다는데

무엇이 그리워 그리
키를 세우며
그 끝에 붉은 색 꽃을 피우나
마른산 너머 그 님이 그리도
보고 싶었나

자기 마음 타는 모습 보이려고
꼭대기에 불을 켜나보다

너를 괴롭혔던 피약별과 거친 바람
수많은 해충들도
타오르는 생명력 앞에
모두 굴복했다.

너의 강하고
붉은 마음
우뚝 서 그님에게
보낼 수 있어서
참 좋겠다.





소소한 행복

김명애
새서울로타리클럽

한편의 예고편도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는 코로나19
불청객인 코로나19가
우리 곁을 찾아온 지
어언 8개월이 훌쩍 지나가네요

끝이 안 보이는 현재
격리된 환자는 물론
보호자도 가슴 졸이며
현 상황을 지켜보며
따라가야만 하는 상황
그 무엇이 환자는 물론
가족들의 아픈 마음과
몸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지?

소소한 일상을 멈추게 한 코로나 19
가족의 소중함, 지인들과의



따스한 만남
우리 모두 한뜻으로
소소한 행복을 만날 때까지
공포의 코로나를 꺾듯하게
이겨냅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



시련(試鍊)의 언덕을 넘으며...

김무일 (시인)

5지역대표, 한성로타리클럽

흐르는 江물도 절벽을 만나야 아름다운 폭포를 이루고
西山에 지는 저녁노을도 구름을 만나야 곱게 물들듯,
우리들 삶도 세상을 살아가며 꺾은일 힘든일 슬픈일을
겪어야 마침내 희망의 고개를 넘는가 봅니다.

한달이 크면 그 다음 한달은 작게 마련입니다.
음지(陰地)가 양지(陽地)되고 겨울이 지나야 꽃이 필니다.
산길을 걷다보면 오르막 길과 내리막 길을 만나듯,
폭풍우 지난후에 구름 한점없는 해맑은 날을 만날것입니다.

참된 삶의 즐거움도 역경과 고난을 겪은후에 비로써
뒤 늦게 알게 되는것이 우리들의 人生史인것 처럼
우리들 미천한 衆生도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며 내일을
설계할때, 행운의 女神이 희망의 언덕으로 안내 할 것입니다.

병(甁)에 물을 담으면 물병이,꽃을 담으면 '꽃병'이,
그리고 꿈을 담으면 '꿈병'이 된다 하던가요?



우리들 삶의 그릇도 이와 같아,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인품과 품격의 무게가 달라지겠지요.

아픔과 괴로움과 노여움보다 인내와 겸손과 감사를
담으면 끝내 밝은 희망의 내일을 맞을 것입니다.
무엇을 담느냐 하는것은 어느 누구의 선택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의 결정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을까요?
사랑과 인내와 봉사와 우정을 향아리에 가득 담아
내가 행복하고 남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전하는
뜻깊은 하루를 지내며 오늘의 試鍊을 극복하시길
당신의 수호신에게 기도 드립니다.

오늘같은 내일이면 좋겠습니다

김찬행

서울C&C로타리클럽

오늘이 제일 아름다운 날입니다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이 제일 눈부신 날입니다

오늘이 제일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소중한 사람

그리운 사람

보고픈 사람

가슴에 묻어둔

사람에게

오늘 당신의 맘을

살며시 전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같은 내일을 또 기약하며

오늘의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우산도 없이

주광일 (시인)

비가 내린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대지위에 비가 내린다
아 구름 잔뜩 낀
하늘에서
축복의 선물이 떨어진다
내리는 비에
행복도 같이
내려온다
오늘은 장마비와 함께
축복과 행복이 쏟아지는
좋은 날
약속도 없이
우산도 없이
내리는 비에 젖어
걷고 싶다.



자작나무

배은순 (화가)

그대 어두운 밤 밝혀주는
내 마음의 흰 뜨락에 자라는
한 그루 자작나무

안개 드리운 산자락에
쭉쭉 뻗은 자태를 뿔내며
비바람에 맞서
기죽지 아니하고
하늘에 닿으려는 듯 높다랗게 서 있다

더위엔 그늘이 되고
추운 밤 벽난로에
하얗게 제 몸 불사르는 불쏘시게 되고

긴 다리 흔들리지만
자작자작 쓰러지지 않아
연두빛 잎들 돌아나는 계절이 오면
어느새 내 마음에
깊은 우물을 파는 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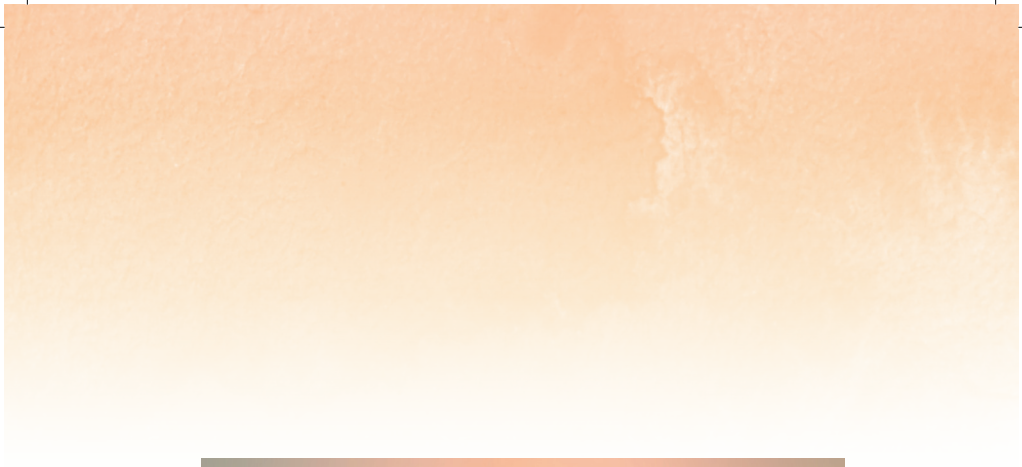
참 좋은 당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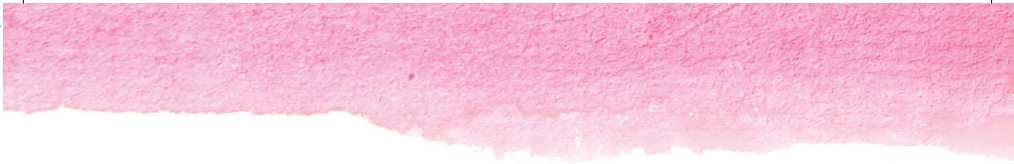
김용택 (시인)

어느 봄날
당신의 사랑으로
응달지던 내 뒤란에
햇빛이 들이치는 기쁨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둠속에서 사랑의 불가로
나를 가만히 불러내신 당신은
어둠을 건너온 자만이
만들 수 있는
밝고 환한 빛으로
내 앞에 서서
아침 들꽃처럼
깨끗하게 웃었지요.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코로나19, 설렁탕 한 그릇에 목숨을 걸다

안상제 (시인)

설렁탕 한 그릇 먹는데도
커피 한 잔 먹는데도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지인께서 사 주시겠다는
설렁탕 한 그릇
커피 한 잔

눈물겹도록 고맙긴 하오만
그 호의를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니

마스크 안 썼다간
언제 어디서 코로나가 침투하여 목숨을 앗아갈지 모르는 세상

4차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이 천재 이세돌을 무참하게 박살 내는
기술이 한없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마스크 쓴 채로 설령탕 한 그릇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이 간단한 기술은 아직도 없다 하니

호의를 받아주기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내게
사 주는 당신이 더 고마워해야 되는 건 아닌지

예끼 여보슈
댁은 목숨을 걸어 얻어먹기라도 하지
돈까지 써가며 목숨을 거는 난 뭐라 해야겠오

인류가 생긴 이래 살기 위해 먹었지
먹기 위해 목숨을 걸어본 적 있었던가

이 희한한 세상
쇠주라도 한 잔 하며 풀어보고 싶은데
또 목숨을 걸어야 하나

하늘이 화났어

홍성훈 (시인)

얼마나 화가 나면
마스크로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았을까

얼마나 화가 나면
서로 만나지 못하게
거리를 두게 할까

얼마나 화가 나면
더러운 검은 손
깨끗이 씻으라 했을까

하늘을 두려워하자
하늘이 화났어





햇살

하회상 (시인)

빙하가 녹아내린 북극의 산봉우리에 파랗게
풀썩이 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두껍고 무거운 얼음을 걷어낸 햇살이 따뜻하게 와 닿는 토양에
풀씨가 날아와 앉았기 때문입니다.

나무 등결의 투박하고 딱딱한 껍질을 비집고 봄날 새 움이 뿔죽
송곳니 같이 비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움은 장차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줄 것을 다짐 합니다.

어머니가 바스러뜨려준
조개 껍질을 쪼아먹고 암탉이 깐 사기질의 단단한
달걀 껍질을 비집고 샛노란 새 생명이 성냥개비같이
가냘픈 발목을 버팀목으로 하여 사뿐 사뿐
햇살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병아리는 장차 조개껍질을 쪼고
또 알을 낳 것입니다

나의 애먼 목숨은 애초에 어둡고 긴 긴 피투성이의 산도産道를



헤집고 나와 쏟아지는 빗살에 감격하여 목놓아 크게 울었습니다.

오늘 창밖에 넘쳐나는 햇살은 풀삭과 새 움과 병아리와 더불어
나누어야 할 나의 몫을 한껏 쏟아놓고 있습니다.



희망의 이름으로

정이현 (소설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불명의 폐렴 환자가 집단 발생했다는 뉴스를 스치듯 처음 들었던 날이 떠오릅니다. 새해 초였습니다. 희망찬 신년 인사에 섞여 날아온 한 조각의 짧은 소식. 그때 저는 그것을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새해를 맞아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느라 바빴기 때문입니다.

2020년을 맞이하며 저에게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몇 번의 길고 짧은 여행과 지방 강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미뤄오기만 했던 운동도 시작하고 싶었고 글도 열심히 쓰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하교하는 늦은 오후까지 제게 주어진 매일의 시간을 알뜰하게 활용하리라 다짐했습니다.

2020년 8월 초 현재, 그 계획들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는 차츰차츰, 그러다 어느 순간 느닷없이 일상을 덮쳐왔습니다. 여행과 강연은 취소되었고, 아이들은 오랫동안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덩달아 저도 일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고 생계가 어려워지신 여러 이웃들이 곁에 계십니다. 당연하던 일상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간밤에 추가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숫자에 따라 조금 더 불안해하고 조금 덜 불안해하기를 날마다 반복하면서요. 누군들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사이 지나간 봄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름이 깊어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름에 꽁 붙들려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집 앞 골목길에서 유모차에 앉아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돌이 갓 지났을까 싶은 그 조그마한 아기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두 눈동자가 초롱초롱했습니다. 활짝 웃어주었는데, 저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니 아기는 알아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 아이가 태어난 뒤 지금까지 만난 이 세상은 어떤 빛깔일까? 그것을 떠올리자 갑자기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 저는 천천히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삼 마스크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집 밖을 나설 때 필수품이 된 마스크. 그러나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이유만으로 마스크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겨주게 될까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마스크를 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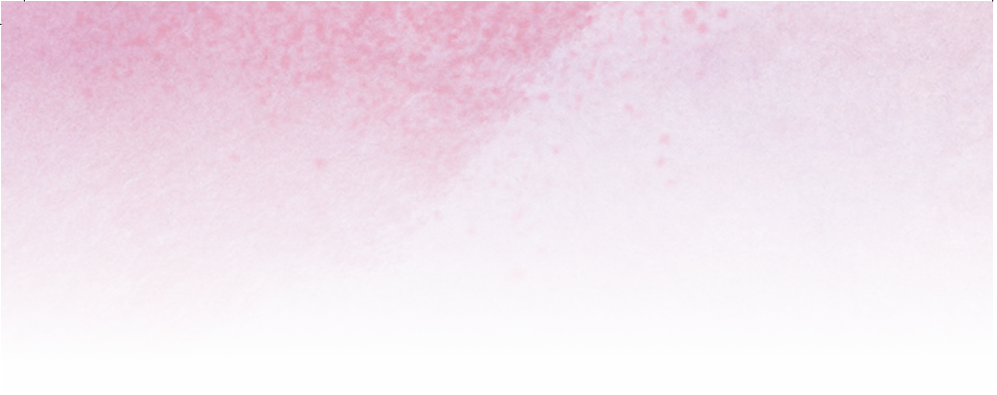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이 지독한 질병의 기습 앞에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생각보다 더 단단하게 묶여있는 관계라는 사실을 아프게 깨닫습니다.

헌신하시는 의료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의 필사적인 사명감과 용기 덕분에 여기까지 버텨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확진되어 병상에 계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막막함과 절박함에 대해 어떻게 감히 짐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모두 다 간절히 당신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는 것만은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곧 이 계절도 지나가겠지요. 그렇게 믿습니다. 한때 우리에게 힘들고 이상한 날들이 있었다고, 이제는 다 지난 일이라고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는 훗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코로나19 이전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도 듣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 다시금 찬찬히 사유하는 일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마스크를 고쳐 쓰며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희망이라고 말입니다.



Rotary 로타리소개

국제로타리 (Rotary International)

로타리(Rotary)는 1905년 미국의 황폐해진 경제 상황 아래서 시카고의 청년변호사 폴 해리스(Paul P. Harris)가 세 사람의 친구와 함께 2월 23일 제1회 첫 모임을 갖고 어려운 사회 변동에 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은 것이 로타리클럽의 탄생이다. 로타리라 한 것은 회원 각자의 사무실에서 번갈아 돌아가며 집회를 가진 것에서 연유되었다.

로타리클럽은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오늘날 전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에 걸쳐 3만 6천여개 클럽, 122여만 명 회원으로 세계 최대 민간 자원봉사단체로 발전했으며, 사업 및 전문 직업에 종사하는 각계각층에서 배출한 지도자들이 초아의 봉사자로 참여하여 지역사회와 세계 평화 증진에 힘쓰고 있다.



Sylvester Schiele Paul P. Harris Hiram E. Shorey Gustavus E. Loehr



또한 1917년 로타리재단을 창설하여 수많은 인도의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전 세계에서 5만여명의 장학생에게 친선 사절 장학금을 지급하여 인재 양성 및 세계 평화증진에 힘써왔다.

특히 1985년부터 펼쳐온 '소아마비 박멸사업'에 박차를 가해, 현재까지 이 사업에 약 12억 달러를 모금하여 연평균 2천 5백만여명의 로타리 자원봉

사자들이 참여하여 전 세계에 예방접종을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 남아있는 3개의 소아마비 발병국가의 완전 박멸을 위해 빌&멜린다 게이



즈 재단에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4억 5천만 달러를 로타리재단에 기부하고 이에 상응하여 전 세계 로타리 회원들이 2억 달러 이상을 모금하는 등 세계적인 기부 활동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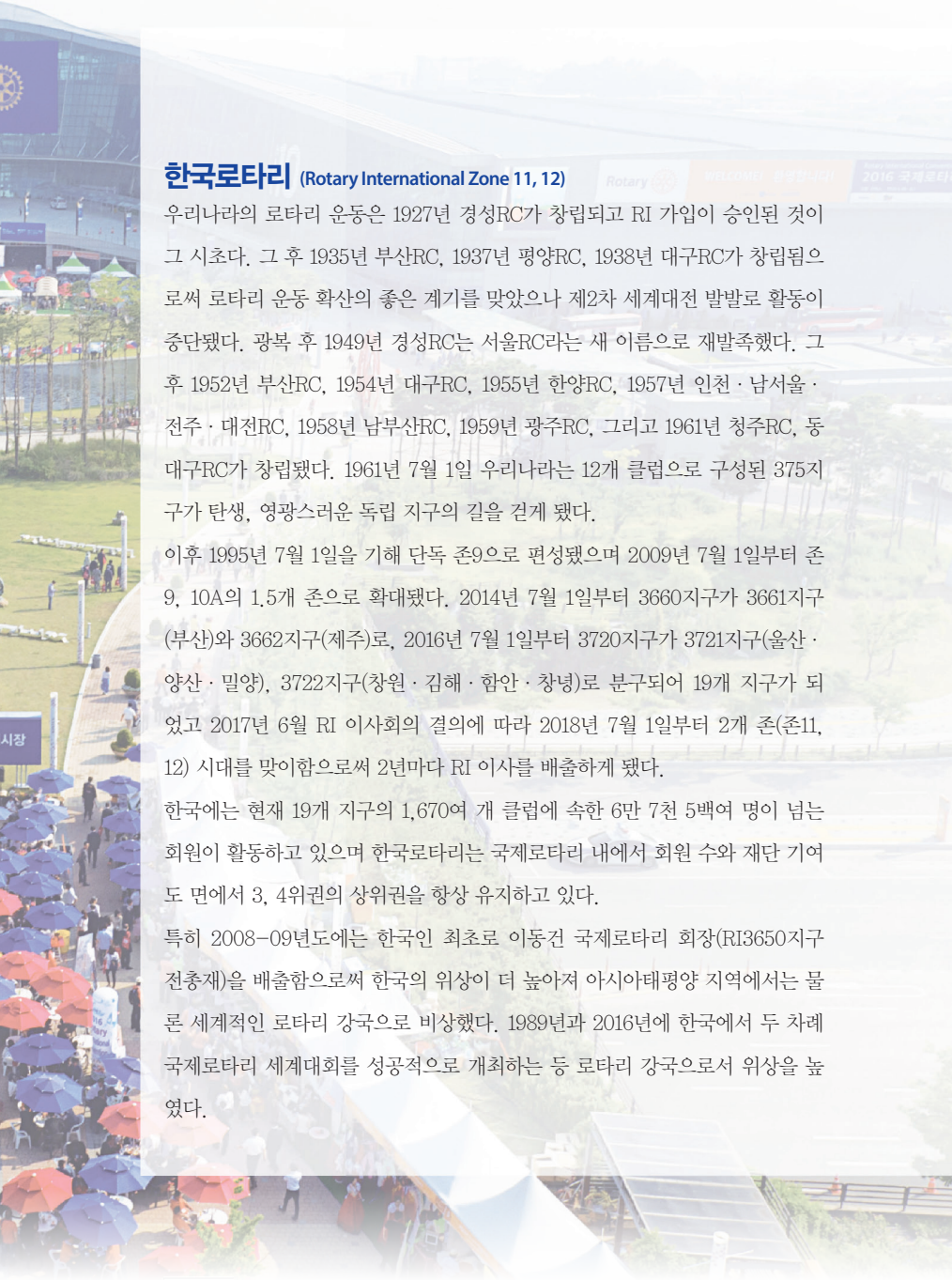
또한 지구촌이 안고 있는 보건 및 기아완화, 문해력 향상, 위생적인 식수 공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세계평화와 분쟁 해결을 위해 설립한 전 세계 7개 대학에 설립된 국제로타리 센터의 세계평화 장학생들과 함께 세계평화를 위한 대안 모색, 연구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1905년 설립된 세계 최초의 봉사클럽 연합체인 국제로타리(Rotary International)는 1915년과 1917년에 각각 창설된 국제키와니스와 국제라이온스의 본보기가 되었으며, 세계 최초의 여성봉사단체인 국제 존타클럽의 모델이 되었다.

또한 국제로타리는 다른 여러 봉사단체의 직접 간접의 발단 계기가 되었으며, 세계신체장애자협회의 최초 지도자 역시 로타리인들이었고, UN의 교육 과학 문화기구인 UNESCO 창립 또한 1942년 로타리 국제대회가 기폭제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13~18세의 청소년 단체인 인터랙트클럽(Interact Club)과 18세부터 30세까지의 청년단체인 로타랙트클럽(Rotaract Club)을 창설해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과 봉사이념을 심어주는데 앞장서고 있다.





한국로타리 (Rotary International Zone 11, 12)

우리나라의 로타리 운동은 1927년 경성RC가 창립되고 RI 가입이 승인된 것이 그 시초다. 그 후 1935년 부산RC, 1937년 평양RC, 1938년 대구RC가 창립됨으로써 로타리 운동 확산의 좋은 계기를 맞았으나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활동이 중단됐다. 광복 후 1949년 경성RC는 서울RC라는 새 이름으로 재발족했다. 그 후 1952년 부산RC, 1954년 대구RC, 1955년 한양RC, 1957년 인천·남서울·전주·대전RC, 1958년 남부산RC, 1959년 광주RC, 그리고 1961년 청주RC, 동대구RC가 창립됐다. 1961년 7월 1일 우리나라는 12개 클럽으로 구성된 375지구가 탄생, 영광스러운 독립 지구의 길을 걷게 됐다.

이후 1995년 7월 1일을 기해 단독 존9으로 편성됐으며 2009년 7월 1일부터 존 9, 10A의 1.5개 존으로 확대됐다. 2014년 7월 1일부터 3660지구가 3661지구(부산)와 3662지구(제주)로, 2016년 7월 1일부터 3720지구가 3721지구(울산·양산·밀양), 3722지구(창원·김해·함안·창녕)로 분구되어 19개 지구가 되었고 2017년 6월 RI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2개 존(존11, 12) 시대를 맞이함으로써 2년마다 RI 이사를 배출하게 됐다.

한국에는 현재 19개 지구의 1,670여 개 클럽에 속한 6만 7천 5백여 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로타리는 국제로타리 내에서 회원 수와 재단 기여도 면에서 3, 4위권의 상위권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8-09년도에는 한국인 최초로 이동진 국제로타리 회장(RI3650지구 전총재)을 배출함으로써 한국의 위상이 더 높아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물론 세계적인 로타리 강국으로 비상했다. 1989년과 2016년에 한국에서 두 차례 국제로타리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로타리 강국으로서 위상을 높였다.



국제로타리 3650지구 (RI District 3650)

국제로타리 3650지구는 1927년 8월 27일에 서울로타리클럽의 전신인 경성로타리클럽이 창립된 이후 1961년 한국로타리의 첫 지구로 탄생하였다.

1961년 한국로타리의 첫 지구로서 375지구를 갖게 되었고 1977년 365지구, 1991년 3650지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3650지구는 1994년 7월 1일을 기하여 서울 한강 이남지역이 3640지구로 분구되어 나감에 따라, 서울한강 이북 지역을 관할 지역으로 하여 2020년 7월 현재 103개 클럽 2,500여명의 회원(여성회원 약 500여명)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로타리 3650지구는 한국인 최초로 2008-09년도 국제로타리 회장으로 취임한 이동건 회장(부방그룹 회장)이 1995-96년도 총재를 역임한 한국로타리의 중주지구이자 리딩 지구로서 그 위상과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며 발전해가고 있다. 또한 이명박 前대통령(서울삼청RC 초대회장), 故 송인상 전RI이사(부흥부 前장관), 故 오재경 전RI이사(문공부 前장관), 윤상구 로타리재단이사(윤보선 前대통령 장남), 윤영석 로타리재단 이사(前 대우그룹 총괄회장), 구자두(LB인베스트먼트 회장), 장충식(단국대 재단이사장), 전순표(세스코 회장), 박영구(금호전기 회장), 박호균(前과학기술부 장관), 이순동(호서대 재단이사장) 前총재, 유장희 총재(이화여대 前부총장, 제2대 동반성장위원장)을 비롯,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들이 국제로타리 3650지구의 로타리클럽 회원으로서 사회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국제로타리 3650지구 103개 로타리 클럽들은 매년 200여개의 봉사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연평균 20여억원에 달하고 있다.

3650지구는 국제로타리재단에 1,300만달러 이상을 기부해 국제교류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기부액의 이자수의 등으로 현재까지 총 300여명의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 해외유학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한국로타리 장학문화재단에도 83억원을 기부해 해마다 100여명의 국내외 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을 주고 있다.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봉사단체인 17개의 로타랙트 클럽(18-30세 미만), 14개의 인터랙트클럽(13-18세 미만)과 4개 리틀랙트클럽(8세~13세)을 후원하고 있으며, 일본 도쿄와 오사카 미국의 미네소타주, 위스콘신주, 오레곤주, 대만 타이페이, 타오유안 등의 로타리 지구들과 함께 국제봉사 및 신세대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국제봉사사업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는 국제로타리 3650지구는, 특히 국제로타리 창립 100주년이었던 2004-05년도부터 5년간 한국로타리 17개 전 지구와 공동으로 매해 봄마다 발생하고 있는 황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봉사 프로젝트를 5년 연속사업으로 매년 30만 달러씩 5년간 총 150만달러의 기금을 조성, 몽골에 목목을 재배하는 시설과 기술을 전파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 몽골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일본과 네팔 지진 재해 구호 지원 사업, 전국 도서벽지 어르신들을 위한 전립선 무료 검진 진료사업, 서울시 여성보호센터 및 AIDS 환자 보호시설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어린이 지원 사업, 서울지역 난치병 영유아 무료 수술 사업 등 미국, 일본, 대만, 인도, 몽골, 터키, 케냐, 탄자니아, 필리핀, 태국, 네팔 등 다양한 로타리 국가들과 함께 100여건 이상의 로타리재단 보조금 봉사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시해왔다.

아울러 지난 2009년 12월 서울특별시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고, 2010년 3월부터 기획재정부 지정 기부금단체로 승인받아 명실상부한 국제민간 자원 봉사단체로서 위상을 재정립했다.

특히, 1989년 개최된 제80차 서울 국제대회와 2016년 5월말에 킨텍스에서 개최된 제107차 로타리 국제대회의 주관 지구로서 지구 내 모든 로타리안들이 대규모 국제로타리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펼치며 국제로타리와 대한민국 위상 제고에 앞장서 오고 있다.



1989년 제80차 서울 국제대회 개막식

로타리 모토

The Principal Rotary Motto (로타리 제1모토)

Service Above Self

초아의 봉사

The Secondary Rotary Motto (로타리 제2모토)

They profit Most Who Serve Best

가장 훌륭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거두어들인다.

국제로타리 비전 선언문 (Vision statement)

“우리가 함께 꿈꾸는 세상은 다 함께 힘을 합하여 지구촌과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창조적 변화를 끊임없이 실천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Together, we see a world where people unite and take action to create lasting change—across the globe, in our communities, and in ourselves.”

로타리의 목적

로타리의 목적은 봉사의 이상을 모든 가치 있는 활동의 기초로 발전시키고 증진하는 것으로, 특히 다음을 복돋는 데 있다.

첫째 사람 간의 교류를 봉사의 기회로써 넓히고 함양한다.

둘째 사업과 직업에서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의 가치를 인식하며, 로타리안 개개인의 직업을 사회에 봉사할 소중한 기회로 삼는다.

셋째 로타리안 각자의 개인 생활, 직업 활동 및 사회생활에서 봉사의 이상을 실천한다.

넷째 봉사의 이상으로 맺어진 사업 및 직업인들의 범세계적인 우정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이해와 친선 그리고 평화를 증진한다.

네 가지표준 (The Four~way Test)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있어서

1. **진실한가?** Is it **TRUTH**?

2. **모두에게 공평한가?** Is it **FAIR** to all concerned?

3. **선익과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Will build **GOODWILL** and **BETTER FRIENDSHIPS**?

4. **모두에게 유익한가?** Will it **BENEFICIAL** to all concerned?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詩選

참 좋은 당신

발행인 유장희 총재
편집위원장 서종렬 사무총장
편집부위원장 황순신 사무부총장

발행처 국제로타리 3650지구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02,
203호 (03169)
전화 02.707.3650
팩스 02.702.3650
이메일 rotary3650@daum.net
발간일 2020년 9월 17일
편집디자인·제작 ㈜지엔피링크

비매품



